

“불황에 실 수가 있나요”... 초등교사 자리가 안난다

광주지역 올해 합격자 300명 중 20명만 발령

작년보다 휴직자 절반 줄고... 조기복귀 잇따라

광주지역 신규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발생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초등 예비교사 300명 중 6.7%인 20명만이 발령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280명은 한정없이 기다리며 한숨만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1일 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초등 신규교사 20명만을 성적순 등에 따라 임용

했다. 지난달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300명 중 6.7%에 불과한 인원이다.

지난해 350명을 선발해 179명을 발령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예년보다 휴직 교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다.

3월1일 기준으로 광주 초등학교의

휴직자는 169명이다. 이 중 163명이 복직한다. 휴직에 따른 결원은 불과 7명뿐이다.

지난해에는 휴직자 279명 중 120명만이 복직했다. 159명의 신규 발령 수요가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휴직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휴직자들의 조기복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조기 복귀를 희망한 한 교사는 “육아휴직 3년을 냈는데 경제난 등으로 조기 복귀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도 한 원

인이 됐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광주지역 초등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59명을 감축했다.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는 9만2488명으로 지난해 9만6056명보다 3568명이 감소했다. 학급 수는 30학급이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미발령 교원은 서울시교육청 990명, 대구시교육청 350명, 강원도교육청 220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환경 개선, 교원 수급 정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투자의 발목을 잡았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와 함께 원활한 인사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을 예산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동 양육비

왜 제날짜에

지급 않나요

일부 구청에 항의 잇따라

광주지역 일부 구청이 0세~만 5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25일 광주시와 각 구에 따르면 각 구는 매달 25일 구비 부담 7.5%를 포함해 국비(75%)·시비(17.5%)를 지원받아 0세~6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10만~20만 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각 구별로 지급해야 하는 이달 양육수당은 ▲동구 3억200만원(대상자 수 1863명) ▲서구 9억7000만원(6023명) ▲남구 5억6000만원(3650명) ▲북구 13억원(8126명) ▲광산구 15억원(1만 명) 등이다.

하지만 복구의 경우 매달 25일 오전 중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시비 지원이 평소보다 3~4일 가량 늦게 지원되면서 양육수당 지급이 늦춰져 해당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북구는 26일까지 양육수당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동구와 광산구는 우선 시비 지원금 5280만원·2억6250만원을 구비로 부담한 뒤 대상자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미세먼지 가득

2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지구 아파트 단지에 미세먼지와 연무가 가득 차 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농도는 이날 오전 10시 196µg/m³까지 치솟았지만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평균 120µg/m³를 초과하면 주의보를, 250µg/m³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 기름 피해 20억 우선 지급

복구작업 주민 2만5000명에... 수산물 구매 약정도

허진수 부회장 “선사측 보상한도 초과땀 추가 보상”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가 선사측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 보험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수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수산물 구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GS칼텍스 대표이사인 허진수 부회장은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정과 염려를 가진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면서 “사고 후기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 대응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측은 “선사 측의 보험 피

해보상 책임 한도가 300억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그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추가 보상액은 회사에서 들어 있는 추가 보증을 활용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판매 부진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GS칼텍스의 전 계열사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GS칼텍스는 이날 여수시를 비롯해 남해군, 광양시, 하동군과 7억원 규모

의 수산물을 구매하는 약정식을 맺고 “효소등 등 모든 협력사를 통해 여수 지역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계열사의 역할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까지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주민 2만5000명(연인원)에게 참가한 날짜를 계산해 방제비용 총 2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과 관련, “피해 보상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방제 과정에서 투입한 인건비와 장비 등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6분 해질 18시 25분 달출 04시 16분 달몰 15시 02분

대지를 적시는 비

바람강하니 시설물 관리 주의 필요

광주	흐리고 비	5/11°C
목포	흐리고 비	5/10°C
여수	흐리고 비	7/9°C
나주	흐리고 비	3/11°C
완도	흐리고 비	6/10°C
구례	흐리고 비	3/9°C
강진	흐리고 비	6/9°C
해남	흐리고 비	6/10°C
장흥	흐리고 비	6/10°C
순천	흐리고 비	6/10°C
영광	흐리고 비	3/10°C
진도	흐리고 비	6/10°C
전주	흐리고 비	3/13°C
군산	흐리고 비	3/12°C
남원	흐리고 비	2/10°C
혁신도	흐리고 비	6/9°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11.43 17: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3:52 00:0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19:07 13:1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침기상청)

날짜	27(목)	28(금)	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6/13	4/14	5/8	1/10	0/10	-1/9

신안 염전 업주들 임금체불 심각

근로자 80명 10억 미지급

신안 염전 업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고용노동지청은 25일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뒤 신안 섬 지역 염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0명에 대한 임금 10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신안 신의도를 비롯, 하의도 등 14개 섬 854개소 염전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신의도(26명)·하의도(12명) 등에서 모두 80명의 노동자가 10억67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at@

31대 전남대병원장 후보

윤택림 교수 등 2명 선임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25일 이사회를 갖고 31대 병원장 후보에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를 선임(1순위)했다. 이사회는 신임 병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윤택림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을 병원장 후보 1순위, 류중선 부총장을 후보 2순위로 각각 선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 퇴임 교원

390명에 훈·포장 수여

정부는 이달 말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퇴임하는 교원 390명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명단 18면〉

광주 서부교육장을 지낸 김승동명중 교장과 이기홍 목포교육장 등 114명이 황조근정훈장, 최영산 광주시교육과학연구위원 등 76명이 황조근정훈장, 김종옥 장성교육장 등 82명이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을 병원장 후보 1순위, 류중선 부총장을 후보 2순위로 각각 선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서울 상담부 (02)2276-0567-9 강남점 (02)3477-5110 중랑점 (02)733-0220 송파점 (02)419-3388 경기 안양점 (031)469-0110-1 평택점 (031)658-5110 용인점 (031)336-1090 오산시점 (031)378-4183 부천시점 (032)329-4400 남양주점 (031)593-9803 부산 서면점 (051)818-8800 서면점 (051)266-7200 울산 울주점 (052)268-2283 경남 마산점 (055)297-6000 안주점 (055)745-9870 대구 동원점 (053)425-4440 삼척점 (053)425-1511 남일동점 (052)651-4477 전남 순천점 (061)752-8845 전북 전주점 (063)252-5728 군산점 (063)446-0198 익산점 (063)838-5600 남원점 (063)632-2626 대전 대청점 (042)254-5110 대전점 (042)222-3388 대전점 (042)255-4800 충남 천안점 (041)553-2888 광주점 (041)852-5110 충북 청주점 (043)222-1177-8 충주점 (043)852-1414 강원 원주점 (033)647-0588 춘천점 (033)253-5110 제주 제주점 (064)753-4358	광주 상담부 (062)225-5110 목포점 (062)651-4477 신의도점 (061)752-8845
---	--